

#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2차 국내논의 결과

## 1. 개요

- (목적) UN 푸드 정상회의(9월) 前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- (일시/장소) '21.4.21.(수) 14:00~16:00 / 오송 H호텔 세종시티
- (참석) KREI, 농식품부, WFP, 생산자·소비자단체, 전문가 등 10여명
  - \* 주제 : KREI 기조실장 우병준 / 발제 : 농식품부 김정락 서기관, 김경은 서기관
  - \*\* 토론자 : 식량정책과장 WFP(임형준 소장), 한농연(박진천 실장), 소비자시민모임(윤명 사무총장), 포스코인터내셔널(김재유 그룹장), 농협경제연구소(홍광석 팀장), 고려대 임송수 교수, 충북대 송양훈 교수 등 / 참관 : FAO(이나라 부소장), 농특위(오세영 사무관), 외교부(배성호 연구원) 등

## 2. 주요 논의 사항

◇ '식량안보'를 주제로 ① 국내 자급기반 확대, ② 위기대응력 강화, ③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·요구사항 등에 대해 토론

- (자급기반) 중장기 계획과 농가소득 지원(한농연), 적정 자급률 수준 설정\*, 국내 생산과 소비 연계 및 친환경 등 가치소비 중요성(소시모·임송수) 강조
  - \* 한정적 국토, 환경 등 여건을 감안, 비용-편익 분석을 통해 적정 자급률 산출
  - 특히,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인력(외국인 포함) 확보 중요(임송수 등)
- (위기대응) 국제곡물위기에 대비한 비축 확대(포스코), 식량안보 강화 차원의 ODA 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 연계\*(포스코·농협) 필요
  - \* 개도국과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하되, 비상시 국내로 안정적 곡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협조,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현지 농민과 마찰 최소화
- (국제논의) 개도국에 새마을운동 등 '한국적 경험' 공유\*(WFP), 주요 곡물 수출국에 국제곡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역할 요청(임송수)
  - \* 개도국 인프라 구축 사업에 새마을운동 경험을 접목하여 의식개혁, 환경개선, 소득증대 달성
  - 사람을 위한 정상회의인 만큼, '소농', '취약농', '고령농' 등도 고려(임송수)